



## 지방화와 정보화추진협의회 역할

The Role of Council of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 the era of Localization



최두진  
한국정보문화센터 조사연구팀장  
Choi, doo-jin/Manager,  
Research Team of Information  
Culture Center.

### 1. 들어가는 말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20세기를 지배해온 이념의 대결이 끝난 지금 세계는 민족간의 분쟁과 국가간의 경제전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경의 의미가 퇴색한 세계화와 지역의 자율성이 강조되는 지방화가 동시에 진전되고 있다.

바야흐로 지금 인류사회는 일찌기 미래학자 J.Naisbitt가 '대변혁(Megatrend)'으로 지칭한 바 있는 문명사적인 전환기에 처해 있으며 변화의 물결을 선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컴퓨터와 전기통신으로 대표되는 정보화이다.

국가간의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은 21세기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정보화 추진에 국가적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생존의 차원을 넘어선 국가의 번영을 지속하고자 세계화전략을 수립하여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등 정보화에도 국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6월 4대 지방선거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열리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제 정보화와 지방화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무한경쟁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기본전략으로서 21세기 국가발전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의 핵심과제이

자 전략적 수단이다.

정보화, 지방화, 세계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가적 리더쉽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사회 지도층의 정보화와 지방화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그 어느때 보다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 글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보화와 지방화 촉진에 많은 기여를 해온 정보화추진협의회의 연혁과 활동을 간략히 소개하고 본격적인 정보화, 지방화 시대의 도래에 따른 새로운 사명과 역할을 조망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정보화추진협의회의 연혁과 구성

1988년은 우리나라 정보문화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원년으로 이해 6월에 범국가적인 정보문화 홍보 계몽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추진코자 정보문화의달이 제정되어 처음 실시되었다.

제1회 정보문화의달 행사에 앞서 그해 5월 31일에 정보문화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선도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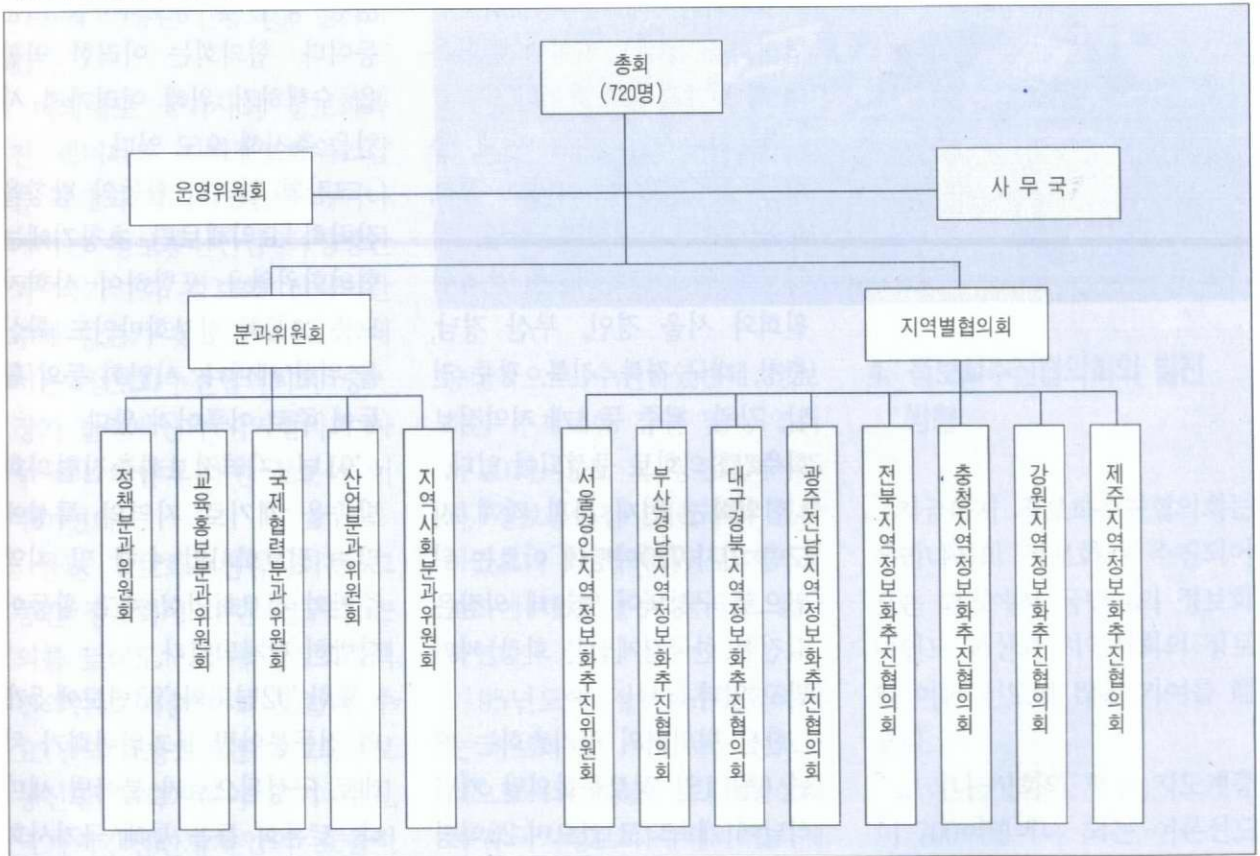
자 관계, 법조, 경제, 언론, 예술계 및 사회단체의 지도층 인사 170여명으로 정보문화협의회가 발족하였다.

이후 정보문화협의회는 매년 사회 각계의 지도계층을 협의회 위원으로 영입하여 정보화 촉진을 위한 국가여론을 선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한편 1991년에는 지방자치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앞두고 지역사회 정보화 추진의 구심체가 될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가 전국 8개 지역에서 결성되었다.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는 정보

〈정보화추진협의회 기구표〉





화 분야의 전문인을 중심으로 지역의 핵심지도층인 대학교수, 상공인, 언론인, 사회단체 임원, 행정기관 간부들을 위원으로 지역별로 약 40명 내외로 구성되었다.

이들 협의회는 지역사회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연구와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문화 홍보 계몽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우리나라의 지역정보화 활성화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정보화추진협의회는 우리나라의 정보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선도하고 정보문화확산운동에 박차를 가하고자 기존의 정보문화협의회와 8개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를 1992년 6월에 통합하여 확대 개편한 조직이다.

정보화추진협의회는 현재 총회와 운영위원회, 그리고 정책, 교육 홍보, 국제협력, 산업, 지역사회 등 5개의 기능별 분과위원회의와 서울 경인, 부산 경남, 충청, 대구 경북, 전북, 광주 전남, 강원, 제주 등 8개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로 구성되어 있다.

협의회는 현재 사회 각계 지도층 인사 720여명에 이르는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장은 김진현(한국경제신문 회장)씨가 맡고 있다.

한편 협의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6월 1일 정보문화의달 기념식날에 개최되고 있으며 20여명

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위원장 : 김정흠)는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등을 위해 연간 2회의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 3. 정보화추진협의회 사업 및 활동

현재 정보화추진협의회의 규약에 명시된 기능 및 역할은 정보사회로의 효과적인 진입을 위한 여론형성과 여건조성에 관한 활동, 정보문화운동과 관련된 대국민 홍보 계몽활동, 정보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및 건의, 지역정보화 추진 방향 정립 및 정보화사업 자문 등이다. 협의회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간의 협의회 활동의 방향을 간략히 요약해보면 초창기에는 협의회위원을 포함하여 사회지도층 그룹의 정보화마인드 확산을 위한 세미나, 시연회 등의 활동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

'91년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발족을 계기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보화사업 수행 및 지역주민의 정보화인식 제고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또한 '92년도와 '93년도에 5개의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가 차례로 구성됨으로써 분야별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 국가사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건의 등 국가전반의 정보화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이제 협의회의 '94년도 사업 추진현황 및 '95년도 사업을 중심으로 협의회의 활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소개해 보고자 한다.

'94년도에 정보화추진협의회는 정기총회 및 운영위원회 개최 등 공식적인 행사이외에 5개 분과위원회별로 각 1-2회씩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사회 정보화 촉진, 정보문화확산, 정보화추진협의회 활성화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정보통신부 장관의 참석하에 의장단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외에도 국가사회 정보화촉진 세미나와 지역정보화워크숍을 각 1회 개최하였는데 세미나에서는 정보통신산업 육성방안과 국가사회 정보화 전략이란 주제 발표가 있었으며 워크숍에서는 정보화추진협의회의 중·장기 발전방안과 지역협의회 사무국의 역할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한편 정보화추진협의회는 그동안 정보화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토대로 정부에 정보화정책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는데 주요 건의 내용으로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계획의 조기 추진,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효율적

추진, 농어촌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적극 추진,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및 지원강화, 정보통신 활성화 기반 조성 등이다.

이외에도 협의회는 싱가포르 대만의 정보화 선진 현장을 방문하여 정보화추진에 대한 자료수집활동을 추진하였다.

다음 8개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에서는 주로 지역주민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한 활동을

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목표하에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정보화를 위한 특성있는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연례적으로 추진해 온 세미나와 워크숍 이외에 정책토론회를 2회 개최할 예정이며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는 50여건에 이르는 지역정보화 홍보 계몽 및 학술행사 등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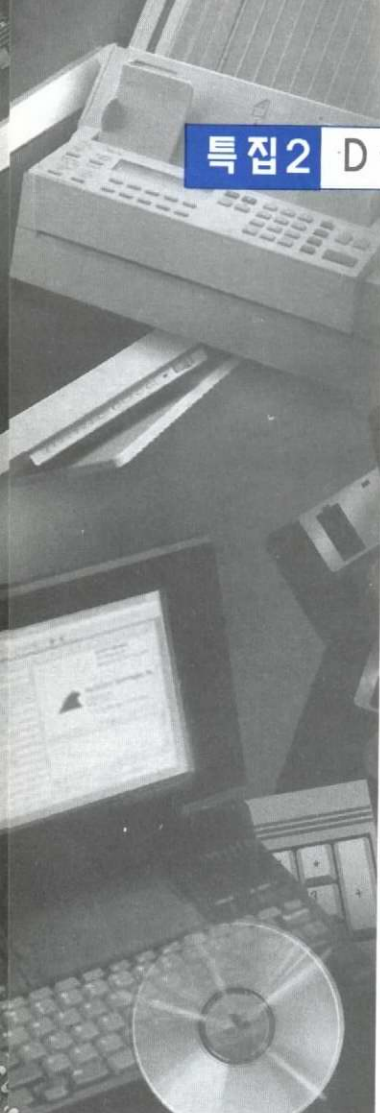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는데 정보화를 주제로한 강연 및 시연회가 20회, 공모 및 경진대회가 5회, 정보통신전시회를 2회 실시하였으며 각 협의회별로 지역정보화에 대한 홍보 책자를 발간하였다.

'95년도에 정보화추진협의회는 정보화추진 국민운동 선도조직으로서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고 국가정보화 추진의 협력체

#### 4. 정보화추진협의회의 발전 방향

지금까지 정보화추진협의회는 우리나라의 정보화가 추진되어 오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지역사회의 정보화 여론 선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사회의 핵심 지도계층이 700여명이나 되는 여론선도



조직으로서 국가사회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나라의 정보화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보다 고차원적인 활동이 미약했다는 점은 사실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정보화, 지방화시대로 진입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에 있다. 국가사회 정보화추진 정책상의 효율을 기하고자 지난해에 정보통신부가 발족되었으며 정보화추진기본법이 올해중 제정될 예정으로 있다.

또한 선진국의 정보고속도로 건설에 발맞추어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비롯한 4대 지방선거를 계기로 지방화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전환기를 맞아 정보화, 지방화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회지도계층의 21세기 국가건설을 위한 비전제시와 리더쉽이 그 어느때 보다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동안 정보화, 지방화를 선도해온 정보화추진협의회의 조직과 기능의 정비를 통한 역할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정보화추진협의회의 조직 정비와 운영 활성화 방안을 간략히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정보화추진협의회를 각 지역의 정보화추진협의회를 대표하는 중앙협의회 형태로 조직을 정비하여 새마을운동 조직에 버금가는 정보화운동조직기구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새마을운동 조직이 우리나라의 공업화와 근대화과정에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한 것처럼 정보화추진협의회를 21세기 정보화운동의 중심조직기구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협의회의 위원의 전면 재구성과 지역협의회별로 전문지식과 능력을 겸비한 위원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정보화추진협의회는 역할과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현재의 협의회는 예산과 참여인력의 부족으로 주로 정보화마인드 확산 활동과 단발적인 정보화정책 건의 및 일반적인 협의회 운영 활동만을 주로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가의 정보화 비전 및 방향의 제시, 정보화정책 개발, 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사업 개발 및 추진, 정보문화 확산 및 정보윤리 정립 등 정보화운동을 국민운동으로 승화할 수 있는 역할과 사업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예산의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협회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업추진시설 및 기반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전국 각지에 정보화에 대한 자문과 홍보계몽 및 교육, 다양한 정보화 시범사업 수행, 공공 및 지역정보의 구축을 위한 정보문화관과 정보사회연수원을 갖추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의 성장발전과 세계속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보화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초 및 광역단위지역별로 지역정보화 추진의 중심이 될 지역정보문화관을 설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언론기관, 정보통신사업자, 공공기관 등 정보화 추진관련 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보화는 일개 정부부처나 특정단체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으며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민·관·학·산의 상호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상에서 정보화추진협의회 발족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보았는데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현재의 정보화추진협의회를 전면 개편하여 범국민적인 정보화추진운동본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

통령을 비롯한 국가정책 결정자들의 범국가적인 정보화추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5. 맺는 말

흔히들 현재의 국제상황을 19세기말의 상황과 유사하다고들 이야기한다.

서국 열강들이 저마다 국익을 다투어 산업화에 뒤진 나라들을 침략했던 19세기 말과 같이 지금의 국제정세도 자국의 경제적 실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간의 경쟁이 어느 때 보다 치열해지고 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19세기가 산업화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정보화의 세기라는 점이며 정보화에 뒤처지면 국제사회에서 후진국의 지위를 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보화와 함께 부각되고 있는

것이 지방화이다. 지방화는 정보사회의 필연적인 귀결이라고 하겠다. 즉 산업사회가 중앙집중의 사회라면 정보사회는 지방분권의 사회인 것이다. 앞으로 국가간의 경쟁력은 지방의 성장잠재력에 더 크게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보화와 지방화는 우리나라가 21세기 선진복지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이며 현재 정부가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의 성공을 위해서 국가지도층 인사들의 리더쉽과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다.

80년 후반부터 우리나라의 정보화와 지방화를 선도해온 정보화추진협의회가 이러한 시기적 전환기를 맞아 더 많은 임무와 활동을 수행해 주길 기대해 본다. **DC**

